

# 3장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 제 3 장

#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 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 11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 1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찜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 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 20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나
-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 서 론

사권에 대한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달리 본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의 특권의 핵심 내용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리라는 보증이다(1~3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에게는 장래의 소망이 있다. 즉 주께서 나타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에 참여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 영적으로 성결해져 주와 같은 순결한 품성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히 12:14). 주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둘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난 자들은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써 날마다 중생의 은혜를 유지함으로 죄를 범치 않게 된다(6,9절). 거듭남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므로, 날마다 자아와 죄에 대하여 굴복하는 능력을 받기 위해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죄를 버릴 수 있게 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의 삶에는 습관적인 마음의 죄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며(요 2:29)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10절).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또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 과 ‘마귀의 자녀들’ 의 구분이 분명해진다(8~10절).**

가인과 아벨을 대조시킴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미움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은 본질상 희생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위 없는 신앙고백은 잘못된 것이다(11~18절).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누려야 한다. 만약 마음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확신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책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지만 신자에게도 다시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19~24절)

결론적으로 요한일서는 사랑의 신학이라고 할 만하다. 본서는, 올바른 교리는 사랑으로 그 순수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또 진정한 사랑은 올바른 교리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히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한 것은 없다. 이것은 사랑이 추상적으로 정의 될 수 없고 실제적인 행동으로만 정의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들을 자신의 피로 사신’ (계 5:9) 예수의 실천적인 희생의 삶이야말로 ‘사랑이 여기 있다’ 는 새 노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연약 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롬 5:6,8,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받는 자인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빛진 자들이 다(롬 13:8). 사도 바울이 사랑을 호소하면서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전 13:2)고 교훈하신 것처럼, 사랑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사랑은 철저한 자기희생을 통해 완성된다. 사랑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자기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의 능력은 상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시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 IV.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대조, 3:1~3:24

#####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 3:1~3:7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 이니라

어떠한 [KJV-what manner, 어떤 방식](헬: 포타포스, potapos) : ‘어떤 종류’, ‘어떤 특성’ 을 의미한다(마 8:27; 막 13:1; 눅 1:29). 요한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묵상할 때 경탄에 빠지게 된다.

사랑(헬: 아가페, agape) : 사복음서에서는 9회만 사용되지만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100회 이상 언급되는 단어이다. 이 서신에도 46회나 언급되는 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되어서 마땅히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지배하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이다.

주사(헬: 디도미, didomi) : 완료시제의 사용은, ‘주는’ 행위가 완결되었지만 그 결과는 계속되는 사실을 강조한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 이후에도 계속되는 지성소에서의 속죄사업의 중보자로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탄원하신다.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중보의 혜택을 힘입어 저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호소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 하나님의 마음속 뿐 아니라 신자들의 생애에도 존재한 자녀 됨은 실제적인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함 :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한다’ .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품성을 더 많이 반영 할수록 그들은 그의 사랑을 거절한 자들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킬 것이다.

###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자녀로 인정받음]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를 통하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것은 석방된 포로, 용서받은 형사 피고인으로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우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자로서가 아니라, 어린이처럼 환영받고 완전히 신임을 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댓가로 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며, 복 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으로 귀한 사랑이여! 이 크신 희생 제물은 흘려넘치는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통로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함이다” (리뷰 1886. 9. 21).

### ♣ 거룩한 과장

성서학에 '거룩한 과장(divine exaggeration)'이라는 말이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글을 끝내며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일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21:25)하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이다.

그러나 거룩한 과장이다.

요한은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자리에 내려와 앉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자리에 내려앉으신 것이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에 빠지고, 아직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완전히 꼴 지워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은 바로 지금이다(마 5:48).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 받아들여졌으며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 이미 하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또 사실이다(엡 1:5~7; 2:4~6).

그분의 의는 우리의 죄 대신에 받아들여졌으며(부조와 선지자, 43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가린 채 아버지 앞에 선다(실물교훈, 311~312). 이러한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사도는 그가 품성과 육신의 궁극적인 완전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거룩한 형상의 회복-의 성취를 가리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찬 1:26), 죄가 그 모양을 파괴했다. 사람에게 죄와 모든 유혹에 승리하게 함으로써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롬 8:29; 골 3:10; 소망, 37~38, 391, 827). 그 회복은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이다(빌 3:20~21). 나사렛 예수를 본 자들은 그분의 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그의 신성의 영광이 인성으로 가려졌기 때문이다(소망, 43).

그러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올 때, 그는 그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며(마 25:31), 그렇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참된 광채를 그 때에 바라볼 것이다.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영적으로 각성된 자들만이 그의 신성을 깨달았던 것처럼(마 16:17), 그 동일한 영적상태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통해 양자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하며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악한 자들은 분노로 찌푸린 모습의 주를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를 영접하시며 칭찬하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할 것인데, 그들의 동일함에 의해 그들은 하늘의 복된 자들이 보는 그대로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왕족에 속함]

“세상의 어떤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늘 임금의 자녀이며 왕족의 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똑같은 영광을 줄 수 있겠는가? ...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면 고상하게 되고 높임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의 동참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음식과 의복과 신분과 부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을 맺고 그분의 신령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리스도인 품성의 왕자 같은 위엄은 태양처럼 비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선은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들에게 반사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는 특권은, 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서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값싸게 얻어진 것이다.

요한이 인간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쓰러졌고 그 광경에 차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멸을 입을 때에는 그들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 (요일 3:2)이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서 사랑하시는 분에게 영접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의는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구속의 계획에서 그분과 함께 동역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영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다” (마라나타, 352).

###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는 구주의 나타나심을 막연히 바라는 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자들의 특성을 소개한다. 그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 여기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의 헬라이어 ‘하그니조’ (hagnizo)는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다’ , ‘정결케 하다’ 라는 뜻으로 의식적인 정결과 도덕적인 정결, 둘 다에 적용된다(요 11:55; 행 21:24; 24:18; 약 4:8; 벧전 1:22).

죄된 인간은 그 자신을 깨끗케 할 수 없다. 그는 죄에 팔렸으며 정결을 위해 구주에게 완전히 의존한다(렘 7:9; 요 3:3; 롬 8:7). 그럼에도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협력하여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빌 2:12,13). 이 일은 부지런한 경계와 기도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쟁취해 놓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하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한 승리를 주기에 충분히 넉넉함을 믿으며 전진하는 것이다(갈 2:20; 빌 4:13). 정결에 관해 진솔함으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인간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유지될 수 있다는 영지주의의 주장을 반박한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보기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도달해 놓으신 순결의 표준을 위해 힘쓸 것이다(빌 3:8~15). 그분은 모든 공격에 대해 승리를 얻으셨으며(고전 5:21; 벧전 2:22),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 놓으셨다(마 1:21; 롬 7:24~8:2; 요일 1:9).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결케 되며, 소망으로 순결해져야 한다.

### 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헬: 하마르티아, harmartia) : ‘과녁을 놓치다’ , ‘잘못된 행위’ , 곧 하

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도덕법을 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나 짓된 소욕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 분명히 죄를 지은 악한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은 3절의 진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역설적인 진술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소망을 가진 모든 자는 그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며, 반대로 죄를 짓는 모든 자는 또한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다.

불법(헬: 아, a- ‘없는’ + 노모스, nomos- ‘법’ ⇒ 아노미아, anomia) :  
‘법 준수’의 부족, ‘무법’ 이와 같이 ‘아노미아’ 와 ‘하마르티아’ 를 연결시킴으로 죄와 불법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죄는 불법이라 : 곧 모든 죄는 불법이고 모든 불법은 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그들을 악에서 구원하며 선하게 지도하시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다(출 20:1).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따라서 그분은 상세히 설명되고 실물로 보여진 율법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생애를 모방해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또는 ‘예수처럼 되는 것’ 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의 계획의 주요한 목적이다. 율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며, 구원의 계획은 모든 덕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제공해 준다.

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신 주된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인

간을 구원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언급한다(마 1:21). 그 목적의 성취는 첫째, 그리스도가 값을 치르신바 죄를 지고 감으로써 성취 되었으며, 둘째, 그가 죄를 소멸시킴으로 성취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주는 죄가 드러난바 된 불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에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죄만 없이 하실 것이다. 5절의 사도의 진술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급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 나타낸바 된 것이지, 율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영지주의자들은 율법의 형식 안에 있는 제약들이 그에게서 제거되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범법을 제거하시되 율법을 존속시켰음을 설명한다(마 5:17~19; 롬 3:31). 여기에 “나타내신바 된 것”은 헬라어 ‘파네로오’(phaneroo)로서 ‘알려지게 하다’, 혹은 수동형으로 ‘보이게 되다’의 의미이다. 2절과 2:28의 ‘파네로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적용된다.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이 있는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에 단 한 번도 굴복하거나 동참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시험 당하셨지만 유혹 그 자체가 예수를 더럽힐 수 없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혹 자체가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에만 더럽혀지는 것이다. 우리 구주는 모든 면에서 그를 맹렬히 공격하는 유혹의 힘을 알고 있었으나(히 4:15) 결코 한 순간도 그의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죄가 끊임없이 그를 둘러싸고 지상생애 내내 압박했지만, 그에게서는 어떤 반응도 찾아내지 못했다(요 14: 30). 그는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다. 그러한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후 5:21). 그는 범죄자로 여겨졌으며(사 53:12), 가장 악한 죄인으로 취급당했으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

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라는 헬라어의 동사 형태는 계속성- ‘거하기를 계속하는 자마다’ -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들은 ‘범죄하기를 계속하지 아니하나니’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곧 습관적이며 알고도 버리지 않는 고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범하기 쉬운 이따금 씩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고집하지는 않는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 받음을 알고 있으나(1:8,19), 그는 또한 그러한 실패에 대한 구체책도 알고 있다(1:9; 2:1). 여기서 그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당하셨지만 한 번도 죄에 참여하지 않으신 구주의 보호하시는 임재 안에 끊임없이 거하는 자가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좇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뜻하는 것이다(히 12:1; 원고 61, 1907). 이와는 반대로 “범죄 하는 자마다” 라는 말은 상습적으로 범죄 하는 자, 또는 죄를 행하기를 계속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는 그리스도를 원래 보지 못하였다고 설명한다.

#### [시험 중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케 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인간이 그의 영혼에서 단 한 점이라도 죄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크신 의의 표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쳐다보는 것을 뜻하며, 그 율법의 빛 가운데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인간이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다...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 하지 아니하나니 범죄 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유혹에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끗하게 해 보려는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을 고상하게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걸치레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회칠한 무덤” 같이 속에는 썩은 것과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바리새인들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의 모든 허물은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분께 공개되어 있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잔의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속을 정결케 하지 못할 것이다.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떤 범위 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능력도 훌륭한 소양이기는 하나 만약 진리가 이보다 더 깊이 영혼을 파고 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마음은 모든 도덕적 불결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편지 13, 1893).

###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

““죄는 불법이다.” 이것이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이다.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있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의의 표준은 아주 광범위한 것이요, 모든 악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다” (원고 27, 1899).

##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단 한 계명을 범했거나 가장 작은 세목 하나를 범해도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 측 입장에서는 그 죄의 형벌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요, 공의의 보수자시다. 그것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다. 그는 그의 율법이 없이는 지낼 수가 없고 죄를 용서하시거나 죄에 적응하기 위하여 율법을 폐지할 수가 없다. 그분은 율법의 정직성과 공의성과 도덕적 탁월성을 온 우주 앞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 앞에서 입증하고,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거룩한 기회들과 편익들을 제공하시고 죄인이 또 한 번의 재판을 받도록 하신 것이다” (원고 145, 1897).

## 7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함과 의로운 상태 사이의 관계를 제시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신자들을, 특히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의의 필요성에 관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애쓰고 있었으며, 죄에 대해 무관심하도록 이끌므로 그리스도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 의의 근원이기 때문에(렘 23:6) 그리스도 안에 시종일관 거하는 자들은 그의 의로우신 품성과 같이 의를 행함으로 신앙을 실천할 것이다.

## 2.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 3:8,9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함이니라 하

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인과 마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마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의도와 임무를 언급한다.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세력과 지배 아래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며 마귀의 뜻을 행하는 자이다(요 8:44).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여...미혹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즉 쫓겨나고 타락한(sinful, fallen nature) 본성으로 오신 것(롬 7:3),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육신 속에 있는 죄를 격퇴시키시고 마귀를 우리 생애에서 추방시키기 위하여서이다.**

롬 8:3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 ↓

(KJV) “...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 ↓  
“... condemned sin in the flesh( ‘육신 속에 있는 죄를 격퇴시키셨다’ )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말하자면 롬 8:3의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죄 있는 육체(sarkos hamartias)와 동일한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었다거나 조금이라도 사람의 죄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이 ...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실제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멸하셨다(KJV)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히 5:9).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인 것이다.

**마귀의 일** : 마귀는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켜 멸망시키려는 목적이지만 반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마 1:21) 이를 통해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멸하려 하심**(헬: 루오, luo) : ‘풀어주다’ , ‘분쇄하다’ , ‘파괴하다’ .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영원한 목적이다.

### [단순함이 깊이 없음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님]

“요한이 말씀의 시여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다. 요한은 가장 단순한 언어로 참으로 실천적인 경건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다. 이 단순성이 깊이가 없음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한은 진짜 남녀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지시하사 그들이 살아계시고 실재하시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될 그런 방법으로 글을 쓰게 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사항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요한은 진리를 제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는 적극적으로 말한다” (사인즈 1899. 1. 11).

### [죄와 타협하지 않음]

요한은 참된 성화의 축복을 누렸다. 그러나 이 사도가 죄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거함으로써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고 공언하는 자는 그의 공언이 거짓된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였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일 2:4). 관대함을 자랑

하는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말씀들은 완고하다는 느낌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손함을 나타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와 죄인을 그대로 죄와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일치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신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역적인 자들과 연합하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일컬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그가 살던 시대에 그랬듯이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혼을 파멸시키는 오류들에 대항하여 의를 위해 굳게 설 것을 요구하신다.(성화된 생애65)

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중생과 죄의 폐기와의 관계를 제시한다. 또한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특성을 묘사한다. 그들은 안으로부터 새로워졌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향하는, 올바른 성품의 회복을 경험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함ियो, 새롭게 하는 은혜는 하나의 영속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씨는 죄인에게 심겨, 새 사람을 탄생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낳는 ‘거룩한 생애의 원리’ (빈센트)이다. 이 거룩한 씨는 회심한 사람 안에 거하고, 그에게 영적활력을 북돋우며, 그가 죄를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신성의 능력이 그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계속하여 범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행동을 범할 가능성, 다시 말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 ‘거룩한 육체운동’ 주의자들은 중생하면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육체가 되었다고 주장).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중생 이후에 거룩한 육체가 되어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다면, 진정한 품성의 계발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품성은 시험이 있는 환경에서 계발되기 때문이다. 신앙은 하나의 기술도 습득되어지는 기교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성품인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범죄하기를 계속 할 수 없는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어 전에 그들이 사랑했던 죄를 미워하고, 전에 그들이 멸시했던 미덕들을 사랑하게 된다(롬 6:2,6; 7:14,15). 그의 영혼은 죄악된 행위들로 나아가게 하는 세력과 성향을 억제하여 금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 죄들의 노예로 계속 있지 않으며, 그들의 이전 실수들을 상습적으로 범하지 않게 된다. 신성의 능력은 그들에게 그러한 약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나누어 주시는 능력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상습적인 죄의 방식을 따르던 옛 사람은 죽었고, 범죄하기를 계속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 3.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함, 3:10~18

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사이를 식별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이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라면 이와는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로 증거 되는데, 첫째는 의를 행치 않는 것이고, 다음은 형제를 사랑치 않는 것이다.

## [요한과 유다]

요한과 유다의 품성 사이에 나타난 현저한 차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요한은 성화에 대한 하나의 생생한 실례가 되었다. 반면에 유다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그의 품성은 거룩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단과 유사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였으나 말과 행실로는 주님을 부인하였다.

유다는 요한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본을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었으며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이 자신의 결점을 대항하여 싸우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 유다는 양심을 거스리며 유혹에 굴하고 그를 사단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부정관 습관에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다.**

이 두 제자들은 그리스도교계를 대표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겸손과 온유 가운데서 행하지만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음을 알려 준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는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전자는 매일 자아를 버리며 죄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는 자기 자신들의 정욕에 빠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 가고 있다.(성화된 생애60)

11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요한이 신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이며,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이다(요 13:34,35).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이다.

## ♣ 서로 서로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나와 너>란 책에서 **사람이란 말의 어근이 '서로 서로'란 말에서**, 곧 '나와 너'와의 조화에서 유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사람의 의의는 '서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서로서로 화합하여 봉사할 때의 기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스투어트 아베리가 쓴 책 <느헤미야>를 통해 본 참 지도자론에서 '서로'란 용어에 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생활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해주며, 함께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엡 6:18). 서로를 격려하라(히 10:24, 25).**

**서로 대화하라(엡 5:19). 서로 봉사하라(갈 5:13).**

**서로 친절을 베풀라(롬 12:13).**

**서로 사랑하라(요일 3:11).**

우리는 모두 서로 봉사함은 물론 모든 일상생활에서 화합을 위해 힘쓸 때 그리스도인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1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 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이니라

요한은 가인을 형제애가 결여된 최고의 본보기로 제시한다. '무엇 때문 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가?' 이 질문으로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배후의 동기를 고찰하도록 촉구하며 나아가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 하는데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 한다(13절). 창 4:1~15에 묘사된 이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아벨의 유일한 잘못은 의로움이었다. 아벨에게는 형에게 살해당할만한 아무 잘못이 없었다. 하나님께 대한 아벨의 겸손한 순종이 그의 형의 시샘 어린 분노와 증오를 일으켰다. 가인의 양심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책망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됨을 너무도 잘 일깨워주는 아벨을 파멸시키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인식했다(부조와 선지자, 74).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도록 몰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 [사단의 분노를 불붙이는 믿음]

“아벨의 순종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생활은 가인에게 끊임없는 견책이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 (요 3:20)니라.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의 품성에서 반사되는 하늘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는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며,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자 더욱더 단호하게 노력할 것이다. 아벨의 살해는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추종자들 사이에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증오심의 실례였다. … 하나님의 어린양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죄를 섬기기를 단념할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는다.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그들을 증오하는 동일한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부조, 77).

####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악인들이 의인들을 미워하는 데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답습되는 것들을 통해 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한다. 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 여자의 후손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미움이라는 것이며, 그 미움의 대상은 곧 성도들인 것이다. 요한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때 의아해 하거나 슬퍼하거나 또 그러한 마음에 같은 방법으로 대항치 말 것을 당부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며, 하늘에 상급을 쌓아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고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눅 6:22; 요일 4:21).

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에 대한 진실하고 거룩한 사랑은 우리가 사망의 세상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미덕, 곧 하늘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미덕들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다. 요약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소유를 입증하지만,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아직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망의 나라에 머무르고 있음을 입증한다(엡 2:1~3). 중생(regeneration)은 이 악한 사망의 세대에서 생명의 새로운 세대로 옮기워지는 것이다.

### ♣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백부장의 이야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군인들의 우두머리인 백부장이다.

그는 로마 장교의 신분인데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기의 종이 아파하는 것을 너무 너무 안타까워 했다.

그는 '예수님은 종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참 사랑'에서 기인된 믿음이었다.  
사랑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행동은 그 자체가 거짓인 것이다.  
형제여! 아무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갖고 싶지 않은가?  
나보다 약한, 불리한 처지의 형제와 우정을 나누고 싶지 않은가?  
종의 아픔을 끌어안고 온 백부장처럼,  
다른 이의 문제를 위해 나의 아픔처럼 주님 품에  
무릎 꿇어 보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마 8: 10)  
이 칭찬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와 본 절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는 동의어이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미움이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하나님을 보실 때 중간지대는 없다. 요한은 증오의 최종적 결과를 두드러지게 지적한다. 사랑의 생명을 물리적 폭력으로 살인하는 방법 외에도 사람을 죽이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 형제를 비방함으로 너무 낙담한 나머지 마음이 상실되어 하나님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달란트들이 사장될 수 있으며, 하나님 사업에 대한 열정을 꺾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함으로 그들의 영적 생명을 소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증오로 가득 찬 마음에는 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5:11,12). 이것은 살인이나 증오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의미가 아닌, 우리가 그 죄를 계속하여 품고 있는 동안에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될 수 있다(1:9).

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 [영생의 댓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롬 8:32)

1937년 어느 여름 날,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한 도개철교의 간수인 존 그리피드는 8살짜리 아들 그렉을 데리고 일하러 갔다. 정오 즈음에 존은 다리를 올려 배들이 지나가도록 하고 그렉과 함께 조망대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1시 7분 존은 멤피스 특급열차의 기적소리를 들었다. 다리를 내리기 위해 조종레버를 잡고 그렉을 찾아 둘러보았다. 그가 본 장면은 끔찍했다. 그렉은 철교를 움직이는 큰 기어 위에 미끄러져 왼발이 2개의 본 기어에 끼어 있었다! 재빨리 존은 해결책을 찾았다. 2가지 길 밖에 없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고 4백 명의 승객을 구하든지, 4백 명을 희생시키고 아들을 구하든지. 존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았다. 왼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는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넣었다. 다리는 제자리로 내려와 기차는 안전하게 통과했지만 그렉은 생명을 잃었다.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셨는데, 아들을 희생하고 인류를 구원하느냐, 인류를 희생하고 아들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전자를 택하셨다.

천사는 “너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아무런 투쟁 없이 내어주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죄인을 멸망 하도록 버려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는 데 내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있어서도 일종의 투쟁 이었다” 고 말했다” (초기, 126).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수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인을 치신-구속의 경륜의 신비를 깨달았을 것이다. 그때에야 아브라함도 본 절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고 마음속으로 깊이 탄성을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다함이 없이 내어 주는 사랑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는 그 이상을 하셨다. **그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을 때 우리들은 ‘형제들’ 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 이었던 것을 잊지 말자**(롬 5:8). 구주의 희생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우리들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요한은 이제 형제들을 위해 죽는 것에서, 동료 신자들의 필요에 의해

우리에게 더 자주 요구되는 좀 더 작은 희생으로 마음을 살피게 한다. 이기적인 형제가 행하거나 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부주의함이 아닌 고의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반문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에 이기적으로 무관심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없다.

### [실제적인 복음의 증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기심 없는 관심을 보여 줌으로써만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증거 할 수 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약 2:15-17)…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 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호, 30,31).

### [영적 난장이들]

“이기주의와 자기 본위의 관심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 보다 심령에서 영성을 속히 시들어지게 하는 것은 없다. 자신에게 몰두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돌봐 주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고 있지 않으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지 않다. 그들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마르고 활기가 없다. 그들은 **영적 난장이들**이며, 자아를 위하여 재물을 다 소비해 버린다. 그러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리뷰, 1895. 1. 15)(구호, 16).

##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불충실한 청지기로 간주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들로 기록될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재물을 남용하는 자들은 그들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판명 된다” (리뷰, 1895. 12. 10)(구호, 15).

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 [그리스도인의 표어]

“나는 그대가 대부분 확고한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음을 보았다. 그대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깊고 철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대는 완전히 진리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회심하게 되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바쳐지게 된다. 이 현신을 그대는 아직껏 경험하지 않았다. **그대는 말로써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열매로써는 그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대의 행동과 그대의 행실은 그대의 사랑의 진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대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증거가 되든지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한 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 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우리가 그분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게 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증거가 아니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증거이다” (1증언, 690).

### ♣ 워너메이커의 믿음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의 소년이 있었다.

벽돌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안 세웠다.

자기 집 같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되었을 것이다.

어느 날 존은 결심했다.

이미 존의 눈에는 벽돌로 포장된 길과

그리로 들어가는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보였던 것이다.

존은 7센트의 임금 속에서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깔기 시작했다. 이 길과 넓은 길을 존이 혼자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것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1개월 내에 일어났다.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은 길뿐이 아니라 넓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이 소년의 이름은 존 워너메이커이다.

미국의 백화점왕이 되었고 미국과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

주었는데 서울 종로 2가에 있던 YMCA 벽돌건물도 워너메이커의

기증이었다. 꿈을 가진 소년, 진창 속에 아름다운 벽돌 포장도로를 본

소년, 구름을 뚫고 무지개를 본 소년이었다.

워너메이커씨가 평생에 지냈던 표에는 세 개의 T자이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자(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이다. 참으로 좋은 크리스천의 표어이다.

## 4.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확증하심, 3:19~24

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회심이 참되다는 보증을 얻게 된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애가 그들의 신실함을 증거 하듯이, 우리 자신의 열매가 우리가 한 공언의 진실성을 말해 준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므로, 구주의 공로와 은혜를 더욱 더 의지하게 되고, 간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진리에 속했음을 알고, 우리가 진리에 속했기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확신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뢰를 주고,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20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나

사도는 여기서 양심의 심판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마음은 스스로 반성하여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다.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소집하여 하나님 대신 재판을 수행한다. 만일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그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더 크

신 증거자이시며, 우리에게 대하여 양심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자아 비난과 자아 확대는 허다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망쳐 놓는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영적상태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도덕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므로 자신들의 약점에 병적으로 집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한은 신자들의 시선을 무능한 자신에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교훈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때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된다. 하나는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마음이 눌릴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여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함으로 용서받은 자에게 이르러 오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과 구속하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배운 자로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여 넘어지게 되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낙담하지 말고, 이렇게 속절없는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실제로 우리에게서 자신에게로 가져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진정한 안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자, 이제 우리는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다른 좋은 것 말고, 그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네 의를 가져 오지 말고,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죄만 제발 가져오라’ 고 호소하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그 분과 동행하는 길이다.

☞ “Don't focus on your problems, but on God.” ☞

(당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慈父的)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롬 7:16).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롬 7:12)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롬 7:14)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발하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takes away the sin-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함이다” (정로, 19).

### § 필자의 간증 §

● 은혜로 변화된 요한은 ‘구원을 만져 본 자’ 로서 확신 있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 을 소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에 놓여 있다. 대개의 경험이 롬 7:14,24 절의 죄의 짐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라고 부르짖고 있다. 필자도 오랜 시간을 이러한 절망의 늪에서 죄의 무게에 압도되어 헤매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바울 사도는 죄의 종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한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다. 롬 7:24의 경험 곧 ‘죄와 사망의 법’ 에 의해 지배당하던 ‘죄 아래 팔린 몸’ 이 어떻게 롬 8:2의 경험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주관하는 ‘의의 병기’ 가 될 수 있는가를 말이다.

그것은 바로 롬 8:1의 경험이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는 것이며, “이는 그리

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나와, 우리를 해방 시킨다!!” 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대언자(보증인)이 시며 죄를 위한 화목제물(담보물건)이신(요일2:1,2)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애간장이 닳도록 증보하시는 내용은,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담보로 하셔서 이 죄인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의 증보의 혜택을 힘입어 나의 피로 산 이 죄인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나의 증인’ 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꼭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입장에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아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롬8:3)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승리하는 모든 비결’ 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령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을 따르지 않고 ‘양자의 영’ 을 획득함으로 “아바 아버지!” , “아바, 아버지!” 하는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며, 유희와 시험이 올 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롬6:2)하며 과감하게 ‘육신의 정욕’ 과 ‘뭇된 생각’ 과 ‘죄질 생각’ 을 내어 버리게 되는 것이다.(갈4:30)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롬 5:12의 보편적인 죄의 역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같이 죄를 “이기고 또 이기는” 구원의 노래를 은혜로 부를 것이다. 롬 5:17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나” 그러나 **그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 “더욱” (much-more) “더욱” (much-more)에 주의하라!!) “아바, 아버지!” , “내 아버지!” 라는 경험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비로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에 이어 요한의 구원의 노래 역시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 요한은 한마디로 요 1:29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는 것이다. 여기서 지고 가는, **takes away the sin(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바로 이 구절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죄의 종이 아닌 것이다. 거듭난 이후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정욕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죄가 허용될 발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로써 난 자**’ (요일 3:9; 5:18)들은 우리를 ‘**피로사신 그리스도**’ (계 5:9)의 은혜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 그렇지만 혹 연약하여 실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히 4:16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대언자(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일2:1)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도(롬5:10) 우리를 죽음 너머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일2:2)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롬5:8)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롬5:8)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일 4:19) “우리가 아직 연약 할 때에” 도(롬5:6) 우리에게 대한 끝나지 않고 계속 계속되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4:18)고 말씀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히 4:15)가 아니시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존심도, 생명도, 하늘

의 지위도 모두 버리고, 죄 짓지 아니하는 일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셨던가? 언제든지 달려가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저 주님은 나의 죄만 가져오라고 하신다. 그 지긋지긋한 죄 덩어리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우리의 잘난 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고, 버리기를 소원하는 그 죄를 주님께 참으로 죄송하지만 갖다드리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이것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눈물과 감사뿐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연약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는 ‘그분처럼 먹고’, ‘그분처럼 마시고’, ‘그분의 모든 습관을 따라하고’, ‘그분의 모든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서’ 마침내 나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그분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분을 열렬히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붙잡자!

우리를 언약의 피로 보증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드시지 않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새 것으로 우리와 함께 드시겠다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꼭, 꼬옥!! 하늘에 가야한다.(마26:26~29) 우리가 하늘에 안 가면 베냐민(구속받을 지구의 살아남을 막둥이들)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갈 하나님(아 곱은 아버지 하나님의 표상)의 절절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꼬옥! 하늘에 가야한다!

어릴 적 필자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자주 생각이 난다.

♪♪♪ 하늘에 곧 갈 테야. 예수님 예비하신 집.

그 곳에서 너를 만나서 즐겁게 놀테야.

저 하늘에 살 때에 이웃집에 누가 살까?

문 두드리면 내가 나와 반갑게 만났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의 간증-

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만일 양심이 우리를 무죄라 하면, 곧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2:12) 아버지를 알았으며(2:13)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바 되면 하나님의 존전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요 16:23).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며 심판자 앞에 정죄 받지 않는 삶으로 인정하시리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예민하게 살피서 성령의 음성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아버지와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놓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다(정로, 93). 화잇 부인은 임종 시에 이런 유언을 했다. “나와 사랑하는 주님 사이에는 가로 막힌 아무 담이 없었다” 이것이 여러분과 필자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 ♣ 험담 사절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의 집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거렸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직업도 다양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남의 험담이나 음담패설로 대화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괴테는 그 사람들이 갈 때 정중하게 타일렀다.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를 우리 집에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모두 주워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집에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런 말들은 공기와 행복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을 설명하는데, 먼저는 기도하는 자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자유로운 태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에 두 조건은,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 질 때에, 비로소 간구하는 자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 의해서이다.

- (1) 탄원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응답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간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요청을 수락하는 것이 최선의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신다. 그런 이유로 바울이 치유를 위해 세 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육체에 가시를 여전히 허락하셨다(고후 12:7~9).
- (2) 대답이 ‘기다려라’ 일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구한 것을 아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황이 응답하기에 아직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다니엘은 그가 미래에 관하여 간구하였지만 21일 동안 대적 바사국군이 막고 있었으므로 대적이 정복되는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단 10:12~14).
- (3) 탄원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 인 것은, 영적 도움을 간구하는 모든 요청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용서를 간구할 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달라고 간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았음을 믿고,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며,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와 협력하여 행동해야 한다(약 1:5,6).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을 쌓고(시 59:1,2), 그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분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거룩한 능력으로 응답받게 된다.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 : 시 40:8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기 원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는 행하기를 삼갈 것이다. 이것은 구주의 생애 가운데 주요한 지침이었다(요 8:29). 동일한 지침이 우리 생애에서 지켜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명령을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야 한다(마 5:48; 빌 3:12~15).

### ♣ 변화시키는 힘

미국의 스톤월 잭슨 장군은 전쟁 중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는 마음속에 기도하는 습관을 굳게 지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복을 빌지 않고는 물 한잔도 입술에 댄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편지를 쓸 때도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관으로 있을 때는 강이가 바뀔 때마다

교실에 새로 들어오는 생도들과 밖으로 나가는 생도들을 위하여

기도 드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습관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이다.

기도는 고난 받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준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유익한 변화가 따르게 된다.

### ♣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인 기도

가장 적극적인 생활은 가장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많은 사역을 하시던 그 때에 더 많은 기도를 하셨다.  
찰스 웨슬리는 매일 두 시간씩 기도했고, 존 웨슬리는 새벽 네 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 존 폴리처도 때때로 철야기도를 했다.  
루터도 하루에 세 시간씩 기도를 했다.  
저드슨은 말하였다.

"나는 하루에 열두 번씩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졸지 않고 계시며,  
항상 그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즉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고 밝히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가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려면 더욱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기도가 되지 않고 힘들어질 때일수록 더욱 애써 기도하라,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다.(눅 18:1)

예수님의 형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던 의인 야고보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을 하나님에게 받은 자의 의무로 생각하고  
늘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탄원한 결과  
그의 무릎은 약대의 무릎처럼 굳어졌다.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니라

(1)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

나님의 아들이며 ‘기름부음을 받은 구세주’ 라는 그 이름이 계시하는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이름으로 묘사된 인물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죄와 사망에 대한 그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써 사용하셨고,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이 사용하신 동일한 방법을 통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굉장한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90회나 언급한다. 요한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교 교리의 핵심 진수를 가장 짧은 말로 요약하고 있다.

- (2)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다(마 22:39). 예수님이 그랬듯이, 요한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사랑의 법 안에 요약한다. 사랑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실제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지만 ‘산 믿음’ 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 이다(약 2:22).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 아모스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암 3:3)고 반문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롬 8:14~16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나니”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 ♣ “손님이 아닙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신앙이 좋았고 선정을 한 여왕인데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서민들과 사귀고 대화하길 즐겼다.

어느 날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이 과부는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교제의 꽃을 피웠다.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 준 손님 가운데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 말에 대한 답변이 여왕이라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 아주머니가 너무도 신앙이 좋기 때문에 여왕이라는 말을 안하고

나의 생애의 최고의 손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자기도 그렇다고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기대 때문에

물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여왕님께서 찾아 주신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손님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하여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아 주신 것이 아닐까요."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나는 그 분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에 여왕이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생활이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생활이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품에

자기를 내어 던져 버리고 맡기는 생활이다.

'주님의 형상대로 빛어 주소서'라는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겠다.

